



[성명] 여성이 병들고 있다! 건강한 일터, 건강한 학교를 만들자!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야 건강한 학교를 만들 수 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건강한 정신, 건강한 삶을 위해 배움과 성장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과중한 업무, 불안정한 고용, 산업재해 위험, 감정노동과 직장 내 차별을 겪으며 건강하지 못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급실실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 가운데 지금까지 폐암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노동자가 178명을 넘었습니다. 그 가운데 15명은 폐암으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또한 1인당 하루 평균 120~150명분 이상의 식사를 담당하는 현실도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돌봄교실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권고 정원(20명 내외)을 초과해 25명 이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지원 현장에서도 1인당 지원 학생 수가 권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특수교육지도사 인력은 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 상담 등의 업무를 맡는 사무직군 교육공무직 노동자는 업무 과중으로 인한 정서적 피로에 더해 민원 응대 과정에서 각종 폭언과 과도한 요구로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95% 이상은 여성 노동자인 가운데 평균 임금은 정규직 대비 60~7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일하지만, 고용 형태와 직종에 따라 임금, 수당, 복지 등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구조적 격차를 겪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다수를 차지하는 교육공무직 여성 노동자들은 저임금, 불안정한 교육, 감정노동과 산업재해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여성 노동자의 건강과 저임금·고강도 노동을 담보로 유지되는 학교가 과연 ‘안전한 학교’일까요? 학교 현장의 구조적 위험과 차별은 더 이상 계속되지 말아야 합니다.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존중과 평등, 안전이 일상이 되는 학교를 보다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일터, 건강한 학교를 쟁취하기 위해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입니다.

2026. 3. 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정인용)